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상생 그리고 과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해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농업이 올해 경종농업이나 축산분야에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갈수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해 토양에 환원해 주고 경종농가에게도 화학비료를 대신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이른바 상생의 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겠다는 것이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이다.

우리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위주의 증산농법에 의존한 결과다. 따라서 토양에 염류가 집적되고 미생물은 감소해 작물의 생육 저하 현상이 고질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를 농지에 적극 활용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농림부 산하에 축산자연순환과를 신설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 축산업도 살리고 토양에 생명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구입에 따른 비용절감도 기대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상생'

자연순환농업의 조기 정착 과제는 경종농가의 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 본다.

경종농가의 필수적인 참여 유도는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면서 가축분뇨가 더 이상 냄새나는 축산폐수가 아닌 농경지에 환



한 응 석 지부장
양돈협회 영광지부

원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늦게나마 정계,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학술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 지금까지의 가축분뇨는 성분도 일정하지 못하고 악취절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고액분리과정, 폭기과정, 운반과 균일한 살포 등이 점차 기술화되어 가고 장비 등도 많은 발전을 거쳐 단일화 되어가는 추세라 본다.

그 외에도 각 지역의 농협, 축협 등도 경종농가나 원에 농가와와의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축분비료(액비)유통 협의회를 각 지자체에서 구성하고 관계 공무원, 지역의 환경운동가, 친환경 농업단지, 양돈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서서히 인식을 넓혀가고 홍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자연순환농업의 조기정착과제

자연순환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본다.

양질의 퇴·액비가 아니면 경종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할 것이고 결국 자연순환농업을 축산농가만이 참여하는 반쪽자리 정책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확산

공동자원화라는 좋은 정책을 갖고도 인식부족, 홍보부족으로 경종농가의 참여가 없으면 무형지물이다. 농경지에 알맞은 퇴·액비를 생산해 공급하는 자원화 시설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이 사



▲ 양질의 퇴·액비가 만들어진다면 사용처는 무궁무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사진은 영광지부에서 자체개발한 액비살포장비를 통해 경종농가에 액비를 살포하는 장면.

업이 앞으로 자연순환농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잣대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해양배출 감축정책, 축분 관련 민원 발생 등이 돈분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 생각된다.

올해 전국에 5군데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시범적으로 설치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환경오염산업으로 치부하는 과정에서 특히 양돈분뇨를 자원화 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다.

나. 범 국민차원의 홍보

국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며 많은 부지를 구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가 절실하다.

다행히 2~3군데는 경종농가들이 앞장서 민원 발생을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가 됐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신뢰를 줄 수 있는 양축농가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국제적으로 곡물가 상승, 유류가 폭등 거기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양어깨를 짓누르는데 가

“축산농가는 분뇨를 자원화해 농작물의 비료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함은 물론 생태계를 살리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구현해야 하며, 경종 원예 농가는 유기적인 농산물을 생산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했을 때 가축분뇨가 더 이상 환경오염원이 아닌 먹거리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순환농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영광지방에서는 지속적인 신문광고와 현수막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액비 집중살포기간에 맞춰 이뤄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종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의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다.

축분노만큼에서는 자연순환농업이라는 기치아래 자원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양질의 퇴·액비가 만들어진다면 사용처는 무

궁무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축산분뇨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이해하고 참아 줄 국민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분뇨를 자원화해 농작물의 비료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함은 물론 생태계를 살리는 친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실현해야 할 책임은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경종 원예 농가는 유기적인 농산물을 생산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했을 때 분뇨가 더 이상 환경오염원이 아닌 먹거리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순환농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또한 축산농가와 경종 원예농가 모두 액비를 이용하는 연속체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도 요구되는 바이다.

양질의 액비가 생산되기까지는 공동자원화시설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갖추어야 할 고가의 장비 및 시설 등을 투자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 외에도 토양검정, 액비성분검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 경종농가, 관계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단언한다. **양봉**